

사림의교회 다락방공과

사도행전 III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과 사귀는

사림의
교회

사김의교회 다락방공과

사도행전 III

지은이 | 유병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과 사귀는

사김의
교회

CONTENTS

들어가는 말	6
1과 비로소 그리스도인 행11:24-30	13
2과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 행12:1-25	18
3과 꿈 너머 꿈 행13:1-5	24
4과 순종의 길에서 만나는 일들 행13:4-12	29
5과 그 길은 내리막이야 행13:13-14	34
6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행13:13-20	39
7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행13:42-52	44
8과 강함은 관계에서 나온다 행14:1-7	49
9과 예루살렘 회의에 가면 행15:12-21	54
10과 주님, 감사합니다 행16:1-5	59
11과 자기 수익의 소망 행16:16-23	64
12과 문이 다 열리며 행16:19-34	69

풍성한 다락방을 위한 가이드

1. 다락방의 모델은 삼위 하나님의 교제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교제는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다락방은 삼위 하나님의 교제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2. 다락방 교제 연습을 해야 합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관찰 및 생각하기, 묵상과 적용 문제로 미리 자신을 돌아볼 때, 다락방 나눔의 은혜는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3. 다락방 나눔은 말씀의 깨달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성경 연구 모임으로 흐르거나 한 주간의 삶만 나누면 어떤 영적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깨달은 말씀으로 자신의 삶이 드러나는 곳이 다락방입니다.
4. 다락방은 관계 공동체입니다. 신앙은 다른 성도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마음이 넓어질수록 성장하는 것입니다.
5. 다락방 나눔 시, 나눔을 하시는 성도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경청할 때, 서로의 마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공과 나눔 시간 뿐 아니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도 다락방 시간입니다. 가능하시면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까지 함께 하셔야 합니다.

다락방 서약서

우리는 다락방 모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임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에 함께 서약합니다.

1. 우리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서 교제하되, 주님께서 우리 순장을 다락방의 인도자로 세우신 것을 인정하며 순장을 따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약속합니다.
2. 우리는 다락방 모임을 통해 주님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되기를 힘쓰며, 세속적인 교제(술, 도박, 불건전한 오락 등)를 금하고, 거룩한 교제에 힘쓰겠습니다.
3. 우리는 다락방 가족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며 결석과 지각을 하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모이기를 힘쓰겠습니다.
4. 우리는 다락방 모임 시 말씀을 나눌 때 누구든지 혼자서 말을 독점하거나 끼어들지 않고 모든 순원이 함께 골고루 나누도록 배려할 것입니다.
5. 우리는 다락방 안에서 나는 개인적인 고백이나 약한 부분을 남에게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 우리는 다락방 모임에서 교회의 하나 됨을 세워 가는데 덕이 되지 않는 논쟁이나 타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발언 등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7. 우리는 순원 상호 간에 어려움을 나누고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되 불필요한 오해나 교제의 부담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꾸거나 꾸어주는 일 등 일체의 금전적인 거래를 하지 않으며, 다단계 판매 등 상업적인 거래도 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다락방명: _____

성명: _____

서명 _____

들어가는 말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사권의교회는 어느덧 5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돌아보면 어떻게 여기까지 달려왔나 싶을 만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시 한 해를 허락해 주셨으니, '병오년(丙午年)'이라는 이름처럼, 말과 같이 힘차게 달려가는 2026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학기에는 잠시 멈추었던 사도행전 공부를 다시 이어가려 합니다. 사도행전은 겉보기에 파죽지세(破竹之勢)로 뻗어가는 강력한 복음의 물줄기 같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역동적인 흐름을 확인하며, 복음이 주는 힘과 능력을 충분히 누리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도행전 곳곳에는 고난과 시련도 많이 발견됩니다. 수많은 사람의 넘어짐과 좌절을 읽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질 것 같은 실망감과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쉬지 않음을 강력히 선포합니다. 오히려 인간의 실패를 도구 삼아 하나님 나라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는 반전의 드라마를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열심'을 만끽할 수 있는 최고의 성경입니다.

그렇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실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새롭고 아름답게 빚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와 순종으로 '주의 길'(길 위의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주님의 나라는 어느덧 우리 삶에 깊숙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가봅시다. 기쁘게도 걸어보고, 힘겨울 땐 지체들에게 기대어 걸어봅시다. 아주 가끔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걸어보기도 합시다. 그 여정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습니다. 이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참으로 설레고 행복합니다.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2026년 1월
여러분의 담임목사, 유병휘 드림

사도행전 개관

:: 들어가는 말

사도행전은 신약성경에서 유일한 역사서이자, 복음서와 서신서를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 역할을 한다. 신약성경에 사도행전이 없다면 우리는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승천 이후 제자들은 어떻게 변했는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은 어떻게 오셨는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많은 이방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가? 바울 서신에 언급된 교회들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가? 사도행전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한다. 사도행전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초대교회 형성 과정과 성령의 역사, 그리고 더 나아가 신약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다.

:: 사도행전의 저자¹⁾

학자들은 누가복음의 저자가 사도행전의 저자라는 데 이견이 없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로 간주되어 왔다. 이러한 견해는 교부들의 외적 증거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제시하는 내적 증거에 근거한다. 초대 교부들은 한결 같이 의사 누가를 사도행전의 저자로 보았다. 누가가 사도도 아니고 열두 사도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음에도 이러한 인정을 받은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물론 성경 자체의 증거가 교부들의 증거보다 더 중요하다. 누가는 바울이 2차 선교 사역 중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가는 시점에 처음 등장한다(행16:10). 그 후 누가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부터(행20:13-21:17) 로마로 후송될 때까지 그와 함께 했다(행27:1-28:15). 그는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2년간 구류 상태에 있었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에 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했을 가능성이 높다.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상태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쓸 때에도 누가가 그와 함께 있었다(골4:14; 몬1:24). 누가는 바울이 2차 투옥되어 순교의 제물이 될 때에도 그의 곁에 있었다(딤후4:11). 저자는 한마디로 말해 무대 뒤에서 바울을 마지막까지 지켜본 증인이었다.

1 유상섭, 『나의 사랑하는 책 사도행전』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17), 8.

:: 사도행전의 저작 시기²⁾

사도행전의 저작 시기는 빠르면 A.D. 55-59년, 늦으면 A.D. 150년으로 추정되어 그 편차가 큰 편이다. 이 사실은 사도행전의 저작 시기를 확정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다행히도 사도행전의 정확한 저작 시기가 언제나 하는 문제는 책의 내용을 해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시기를 단정 지을 필요는 없어 보인다.

사도행전의 저작 시기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다섯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 사도행전은 저자의 첫 책, 누가복음보다 나중에 쓰였다. 다시 말해 사도행전의 저작 시기는 누가복음의 저작 시기와 관련해 확정되어야 한다. 둘째, 저자가 누가복음을 저술할 때 A.D. 65-70년 사이에 기록된 마가복음을 주요 자료 중 하나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셋째, 누가복음은 로마 군대에 의한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임박했거나 이미 이루어졌음을 암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눅13:35; 눅19:43-44). 넷째, 저자는 사도행전 어디에서도 바울 서신에 있는 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않다. 이를 보았을 때 저자는 바울 서신들이 1세기 말경 하나로 수집되기 전에 사도행전을 완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부분은 책의 연대를 측정하는 데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하지 못한다. 저자가 로마 황제 앞에서의 바울의 재판과 그 결과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저술 목적과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소들을 감안할 때, 사도행전은 짧게는 A.D. 70-80년 사이에, 길게는 A.D. 70-90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누가복음-사도행전, 한 권의 책³⁾

사실 저작 목적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도행전은 하나의 독립된 책이 아니다. 누가는 처음부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1, 2부로 구성된 한 권의 책으로 구상하고 집필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누가복음의 후속편으로 집필된 책이라는 것이다. 고대 사회에서 한 권의 책을 여러 섹션으로 나눠 각 섹션마다 서언을 간략하게 기술하는 것은 일종의 관행이었다. 동시대를 살았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도 1, 2부로 나뉜 책, 『유대 고대사』를 1부와 2부로 나누어 집필하면서 2부의 서언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경애하는 에바브로디도여, 이 글의 1부에서 나는 우리 민족의 오래됨을 증명했습니다. …마네도, 카에레몬 등 여러 사람들의 진술에 대해서도 도전의 글을 썼습니다. 이제 나는 우리를 공격한 나머지 저자들을 반박하기로 하겠습니다.”

2 유상섭, 『나의 사랑하는 책 사도행전』, 10.

3 이형일, “사도행전 개관,” 『목상과 설교』 57 (2018): 10-11.

사도행전의 서언도 요세푸스의 글과 매우 흡사하다. 누가는 사도행전 첫머리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라는 글로 시작한다. 따라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처음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을 때는 초대교회 안에서 한 권의 책으로 회람되었다. 그러다가 1세기 말~2세기 초경 네권의 복음서에 각각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고 사복음서가 하나로 수집되면서 누가복음은 아쉽게도 사도행전과 ‘결별’을 고하게 되었고, 사도행전은 하나의 독립된 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⁴⁾

누가가 사도행전을 쓴 가장 주된 목적은 초대교회의 역사를 글로 남기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려 했을까?

첫째, 누가는 사도행전이 예수를 통해 선포된 복음을 확증해 주는 책이기를 원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와 그를 통해 나타난 구원 사역의 실체를 보여주었다면, 사도행전에서는 초대교회가 이 구원의 메시지를 어떻게 선포했으며 확증해 나갔는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사도행전의 독자들은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가 전한 구원이 참된 구원의 메시지이며 만인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임을 확신하게 된다. 따라서 사도행전의 독자는 데오빌로와 같이 이미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했던 비신자들도 포함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의 독자층은 상당히 넓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사도행전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위한 전도의 책일 뿐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믿음을 견고하게 하며 그 믿음의 기초가 견고하다는 것을 주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물론 누가의 최대 관심사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임에도 틀림없지만, 그의 주된 독자층이 예수를 믿지 않는 비신자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는 여기서 누가가 누가복음의 서언에서 밝힌 기록 목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거기서 누가는 자기의 글을 데오빌로에게 바친다. 데오빌로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자로서 누가-행전의 독자층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누가는 모든 일을 근원부터 살펴 그가 믿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어쩌면 데오빌로 역시 이미 예수를 믿지만 그 믿음의 견고함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에 대해 누가는 자신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내용’을 기초로 기독교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저술하였다고 밝힌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신자들의 믿음을 든든하게 하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기초가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4 이형일, “사도행전 개관,” 12-13.

셋째, 사도행전은 예수와 초대교회가 전한 이 복음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진 것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열려있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 없이 받아들이지만, 당시에는 이 사실이 초대교회에서 가장 뜨거운 신학적 이슈였다. 그러면 누가는 이 사실을 사도행전을 통해 어떻게 입증할까? 그는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모두 구약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던 것임을 보여준다. 누가는 예수의 초림과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인 초대교회의 탄생과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된 사실이 모두 구약 예언의 성취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했다.

:: 사도행전의 메시지⁵⁾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누가를 사용하신다. 누가는 단순히 초대교회의 역사만을 서술한 것이 아니라 문학적으로도 가치 있는 책을 집필했다. 누가는 사도행전의 이야기 안에 자신이 독자들에게 전달하려는 신학적이고 목회적인 메시지를 담아낸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해 누가의 손길을 만나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가 사도행전을 통해 전달하려 한 메시지는 어떤 것일까?

첫째, 구약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으며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통해 계속 이어져 나간다. 그중에서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 자신을 인류에 계시하신 가장 결정적이고 획기적인 사건임을 말해준다(행2:23). 누가는 초대교회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진행되었음을 알게 된다. 한 예로 초대교회의 이방인 선교는 사도들의 철저하게 계획된 선교 전략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스테반의 순교를 통해 예루살렘에 안주하고 있던 성도들을 흩으셨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였고,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을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다. 초대교회의 이방인 선교도 알고 보면 하나님이 친히 진행하신 것이다.

둘째, 사도행전은 복음이 많은 저항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퍼져 나갔음을 강조한다. 누가는 지속적인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시들어버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활발하게 확산해 나갔음을 보여준다. 누가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행14:22)는 사도 바울의 말을 특별히 인용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누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기까지 자신의 소명을 다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역시 고난과 박해를 통해 더 넓게 전파될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누가는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산헤드린 공회의 저항과 스테반의 순교와 회심 이후 사도 바울이 겪어야 했던 고난을 사도행전의 이야기 속에 포함시킨다. 더 나아가 누

5 이형일, “사도행전 개관,” 14.

가는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가는 긴 과정을 많은 지면을 할애해 소개한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인내함으로, 신실하게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함을 보여준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이 시들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욱 왕성하게 퍼져나갔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누가는 고난의 신학을 대변한다. 이것이 누가가 독자들에게 보여주려 한 것이고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다.

:: 사도행전 개관

1:1-5:42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증거
1:1-2:47	초대교회의 시작
3:1-5:42	초대교회와 유대 지도자들
6:1-11:18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복음 증거
6:1-9:31	교회 부흥의 시작
9:32-11:18	이방인 선교의 시작
11:19-28:31	땅 끝까지 복음 증거
11:19-14:28	안디옥부터 소아시아까지 선교
15:1-15:35	교회 내 이방인에 대한 토론
15:36-18:17	바울의 마게도냐와 아가야 선교
18:18-20:38	바울의 소아시아 선교
21:1-28:31	바울의 체포와 투옥



- 24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 25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 26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 27 그 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 28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 29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 30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말씀나눔

말처럼 힘차게 달려가는 사도행전의 복음이 드디어 ‘안디옥’이라는 이방 땅에 상륙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의 기원을 소개합니다. 이 표현은 칭찬의 의미였을까요, 아니면 비방의 의미였을까요? 그리고 이 이름으로 불렸던 첫 주인공들은 누구였을까요?

이번 다락방을 통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담긴 참된 의미를 되새겨보길 원합니다. 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를 당당히 외치는 우리 사권의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 첫 모임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시작합시다. 그리스도인으로!

들어가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히 밝히고 있습니까?
2026년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관찰 및 생각하기

1.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행11:26)
2. 안디옥 사람들이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3.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언제입니까? (행 11:19-21)
4. 이 소식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5.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소식을 듣고 즉각적으로 취한 조치는 무엇입니까? (행11:22-26)
6.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행11:29)

목상과 적용

1. 여러분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히 밝히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세상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이미지와 성경이 말하는 정체성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2.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시기과 질투의 감정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이 땅의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당신의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까지의 사역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증인이 되는 사역은 예루살렘 교회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역,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사역’을 위해 그 다음 주자를 부르십니다. 그 대상은 놀랍게도,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교회였습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스펙이나 배경이 아닌, 오직 신실한 ‘그리스도인’과 동역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며, 그 중심이 주를 향한 자들을 통해 당신의 꿈을 이루어가십니다.

기도나눔

1. 말씀을 통해 기도합니다.

- 1)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행11:26)

예)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이지만 주님이 불러주셨으니, 그 호칭에 걸맞은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힘을 주옵소서.

- 2)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도 비교와 시기, 질투의 감정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헛된 생각을 용서하시고, 바나바와 같이 착한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부르신 자리에서, 신실하게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2.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3.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과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



📖 사도행전 12장 1-25절

- 1 그 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 2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 3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 4 잡으매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 내고자 하더라
- 5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 6 헤롯이 잡아 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 7 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 8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걸음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 9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 10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 11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 12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 13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대 로데라 하는 여자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 14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 15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 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 16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 17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 18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 19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심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 20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말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 21 헤롯이 날을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 22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 23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 24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 25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말씀나눔

성경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인물과 사건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데, 여기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곧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1세기 당시, 로마의 영향력 아래 있던 모든 이들은 황제 ‘가이사’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가이사의 명령은 절대적이었고, 이에 불복종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또한 빌라도 총독의 판결이었으나, 실상은 그에게 권한을 부여한 가이사의 명령과 같았습니다. 제자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죽음은 가이사의 권세 앞에 무력해 보였습니다. “가이사가 진짜 왕이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가이사의 명령이 더 절대적이다!” 이것이 제자들이 흠어지며 내린 절망적인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 사건이 모든 것을 뒤바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가이사 권력의 절대성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가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절대적이라는 확신을 준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행4:19)

이 고백과 함께 제자들은 가이사의 명령에 대항하는 전혀 다른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오늘 공과는 세상의 거센 공격 앞에 선 교회와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승리하는지 보여줍니다. 이 시간을 통해 가이사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우리가 나아갈 길을 함께 발견하는 사권의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들어가면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순간의 갈등과 어려움을 순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관찰 및 생각하기

1. 헤롯 왕을 통해 교회를 향한 세상의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됩니까? (행12:1-4)
2.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교회의 분위기는 어떠했을까요? (행12:5)
3. 베드로가 깊이 잠든 밤에 일어난 초자연적인 기적은 무엇입니까? (행12:7-10)
4. 하나님의 역사가 긴박하게 일어나고 있을 때, 성도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행12:12)
5. 교회를 핍박하던 헤롯의 최후와 하나님의 말씀은 각각 어떻게 대조됩니까? (행12:23-24)

묵상과 적용

1. 감옥 문이 열리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드로(그리고 교회)에게 전하고자 하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열림’의 사건이 오늘날 나의 닫힌 상황 속에서 어떤 위로와 소망을 주는지 나누어 봅시다.

2. 베드로의 감옥 문이 열리던 바로 그 시각, 교회는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교회의 진짜 실력(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락방과 사권의교회는 이 사명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3. 헤롯은 신격화되었으나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흥왕하여 퍼져 나갔습니다(23-24절). 세상의 화려한 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중, 나는 지금 무엇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본문의 결론을 보며 느낀 점을 자유롭게 나누어 봅시다.

기도나눔

1. 말씀을 통해 기도합니다.

- 1)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행12:5)
예)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기도’라는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음을 신뢰하며,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 2)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 세상의 공격 앞에 자주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가이사의 명령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어린 양 예수님만 따라가는 흰옷 입은 무리 되게 하옵소서.

2.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3.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3과 꿈 너머 꿈



📖 사도행전 13장 1-5절

- 1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왕 헤롯의 젓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 2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 3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 4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 5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말씀나눔

안디옥 교회는 참으로 독특하고 특별합니다. 이방 땅에 세워진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바통을 이어받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비전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선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1:8)

이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로 거침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과제인 ‘땅끝’을 향한 발걸음이 시작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위대한 과업의 주인공으로 안디옥 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였기에 이 마지막 주자의 사명을 맡게 되었을까요? 2천 년 전 시작된 예수님의 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번 공과를 통해 안디옥 교회의 아름다운 영성을 발견하고, 우리 사귄교회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가 되어, 주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 갑시다.

들어가면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루고 싶은 소망을 순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관찰 및 생각하기

1.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된 세 가지 결정적인 배경은 무엇입니까? (행11:19; 11:20; 11:22)
2. 핍박과 흠어짐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며 무엇을 느끼십니까?
3.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어떤 영적 분위기를 가진 교회로 세워 가십니까? (행13:1; 참고. 행12:24)
4.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면면을 살펴봅시다(행13:1). 이토록 출신과 배경이 다른 이들을 한 팀으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5. 안디옥 교회가 사역의 방향을 결정할 때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던 태도는 무엇입니까? (행13:2)
6.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최초의 선교사'는 누구이며, 교회는 그들을 어떻게 떠나보냈습니까? (행13:2-4)

목상과 적용

1.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은 인종, 계급, 배경이 모두 달랐습니다. 자칫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었던 '다양성'이 어떻게 '선교적 동력'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우리 다락방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 필요한 자세는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2. 안디옥 교회는 공동체의 핵심 리더인 바나바와 사울을 기꺼이 선교사로 보냅니다. 교회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선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결단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기도나눔

1. 말씀을 통해 기도합니다.

1)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행13:1)

예) 교회 안에 다양한 이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틀림이 되지 않고, ‘하나 됨’과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2)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말씀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긴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며, 그렇지 못했던 우리의 교만과 어두움을 회개합니다. 순종이 가장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아름다운 도구임을 믿고, 기꺼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2.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3.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4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5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6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7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8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9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10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11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12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말씀나눔

‘순종’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위이지만, 때로는 심적인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순종에 대해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을 받기 위해 거치는 축복의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은, 이는 결국 우리의 순종인 바, 그것들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것이다. 이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함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순종이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단지 옳은(right) 것일 뿐 아니라, 좋은(good)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깨달음이 있다. 옳은 것이 좋다는 것을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된다. 그것은 복종해야 할 명령이 아니요, 저절로 따르게 되는 거룩한 긍정(divine yes)이다.”

오늘 공과는 바로 이 순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던 안디옥 교회와 바울, 바나바. 그 순종의 발걸음 끝에 기다리고 있던 일들은 무엇이였을까요? 하나님의 선물은 즉각적으로 주어졌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통과해야 할 과정이 있었을까요? 이번 시간을 통해 순종의 길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들과 그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확인해 보려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때로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순종의 끝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쁨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 봅시다.

들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독 순종하기 어렵게 느껴지는 말씀이나 상황이 있습니까? 솔직한 마음을 지체들과 나누어 봅시다.

관찰 및 생각하기

1.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가장 먼저 향한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행13:4) 그곳을 첫 선교지로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행4:36; 참고. 행13:5; 롬9:3; 막1:38)
2. ‘바보’라는 섬에서 사역을 방해했던 인물은 누구이며, 그는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행13:6-8)
3. 대적자의 방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소망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13:7)
4. 성령 충만한 바울이 마술사 엘루마를 꾸짖었을 때 어떤 영적 권능이 나타났으며, 이를 본 총독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행13:9-12)

목상과 적용

1. 바울과 바나바는 가장 먼저 자신들과 연고가 있는 구브로로 향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 이전에 내 곁에 있는 가족과 이웃을 먼저 돌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가장 가까이' 보내주신 영혼은 누구입니까? 그들을 복음으로 섬기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2. 순종의 길에는 '마술사 엘루마'와 같은 방해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방해 너머에는 말씀을 갈급해하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함께 나누어 봅시다.

기도나눔

1. 말씀을 통해 기도합니다.

1)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행13:4)

예) 찾아갈 수 있는 나만의 '구브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까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 않고, 더욱 복음과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2)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 순종의 길에서 '마술사 엘루마'가 나타난 것 때문에, 자주 절망하고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서기오 바울'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순종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2.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3.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5과

그 길은 내리막이야

📖 사도행전 13장 13-14절



13 바울과 밋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14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말씀나눔

유명한 추리소설인 길버트 키스 체스터튼의 <브라운 신부의 순진>을 보면, 보석을 훔쳐 도망치려던 범인에게 브라운 신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선함의 수준은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지만, 악함의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네. 그 길은 계속 내리막이야. 친절한 사람도 술을 마시면 잔인해지고, 친절한 사람도 살인을 하면 거짓말을 하게 되네. 내가 아는 많은 사람이 자네처럼 정직한 범법자로, 부자의 돈을 훔치는 의적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진흙탕에 뒹구는 신세가 되고 말았네.”

이 짧은 권고에 범인은 마음을 돌이키고 보석은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선이 악을 이기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오늘 공과는 바로 이 주제를 다룹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거룩한 동기로 선교를 시작했지만, 뜻밖의 난관에 부딪힙니다. 바로 동역자 간의 갈등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의 문제로 심하게 다투게 된 것입니다(행15:37-39).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성령 충만했던 선교팀 안에서도 이런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역이 여기서 멈춰버릴까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선한 계획 속에서도 악한 상황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을 붙잡는다면,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공과를 통해 이 소망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악의 내리막길에 서지 않고, 조금 힘겹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선의 오르막길’을 끝까지 오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들어가면서

“결국 선이 이긴다”라는 것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작고 소소한 경험이라도 좋으니, 순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관찰 및 생각하기

1. 바울과 바나바의 첫 선교 여행에 동행했던 ‘마가요한’은 어떤 인물입니까?
(행13:5; 골4:10)
2. 선교 여행이 진행되던 중 마가 요한이 돌연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행 13:13)
3. 마가요한이 선교팀을 이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행13:13, 참고. 골4:10)
4. 사탄이 파고들었던 바울과 바나바의 약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목상과 적용

1. 시기와 질투는 성도를 바른 삶에서 이탈시키는 주범입니다(참고. 삼상18:7). 여러분도 시기와 질투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까? 이와 같은 약점으로 인해, 사탄에게 틈을 내어주었던 적은 없는지 정직하게 돌아보고 나누어 봅시다.
2. 그럼에도, 바울과 바나바는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럴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참고. 행13:43,46) 이 모습을 통해 깨닫게 된 여러분의 다짐이나 결단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기도나눔

1. 말씀을 통해 기도합니다.

1)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행13:46)

예) 오늘도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2)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 시기와 질투에 매여, 자주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문제보다 말씀에 주목하게 하시고,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한 몸’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2.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3.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13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14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15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16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17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18 광야에서 약 사십 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19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사백오십 년간이라

20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말씀나눔

사역자에게 ‘첫 번째 설교’는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이 믿는 복음의 정수를 가장 힘 있게 쏟아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공과는 매우 중요합니다. 선교사로 파송된 바울의 ‘첫 번째 공식 설교’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의 첫 설교에서 과연 무엇을 전했을까요? 우리 모두의 예상대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독특합니다. 바로 ‘언약(약속)’이라는 관점으로 복음을 풀어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약속은 신뢰의 척도가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을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 불려도 좋을 만큼, 그분은 한 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일까요? 오늘 공과를 통해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기뻐하며, 그 은혜를 만끽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들어가면서

지금까지의 삶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중요했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이 지켜졌을 때(혹은 어겨졌을 때)의 경험을 순원들과 나누어 봅시다.

관찰 및 생각하기

1. 바울이 설교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언급한 역사적 사건과 대상은 무엇입니까? (행13:17)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을 선택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참고. 창12:2; 출19:5-6)
2.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불순종이 반복되는 과정이었습니다(행13:18-22).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결국 누구를 예비하십니까? (행13:22-23)
3.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세우신 ‘새 언약’의 실체는 누구입니까? (행13:23) 이 언약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참고. 고전 11:25; 히9:15)
4. ‘새 언약’은 이제 더 이상의 언약이 필요 없는 ‘마지막 언약’이라는 의미입니다. 새 언약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행13:32)

목상과 적용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는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와 연결됩니다. 나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에서 회복해야 할 ‘부르심의 모습’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2. ‘옛 언약’이 인간의 조건을 요구했다면, ‘새 언약’은 우리의 연약함까지 짊어 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언약’입니다. 나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새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끝까지 머물기 위한 나의 다짐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행13:43).

기도나눔

1. 말씀을 통해 기도합니다.

1)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행13:23)

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새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2)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 지금이 새 언약의 시대가 아닌, 옛 언약의 시대인 것처럼 내 힘과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하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의 언약을 전파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2.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3.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7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 사도행전 13장 42-52절

- 42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 43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 44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 45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 46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 47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 48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 49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 50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 51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 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 52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말씀나눔

오늘 공과에는 두 가지 상반된 시선이 공존합니다. 하나는 복음 사역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부흥의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복음을 거세게 가로막는 방해 세력의 등장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이질적인 두 사건이 하나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진 신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고난조차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8:28)

이 말씀처럼,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됨을 확신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보이는 현상 너머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인생의 고난이나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 느꼈던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관찰 및 생각하기

1.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은 점점 더 흥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역에는 어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행13:42,48,49,52)
2. 이러한 부흥의 배경에는 안디옥 교회의 보이지 않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희생은 무엇이었습니까?
3. 부흥이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 어떤 방해와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행 13:45,50)
4. 박해로 인해 복음의 문이 닫히는 듯했으나, 하나님은 이를 통해 어떤 ‘새로운 길’을 여십니까? (행13:46-47).

목상과 적용

1.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만 해도, 그들은 앞날의 박해나 구체적인 열매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심고 있는 ‘순종의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길 기대하는지 나누어 봅시다.
2.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오히려 ‘새로운 사역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현재 내가 겪는 시련이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과정임을 인정하십니까? 낙심 대신 소망을 품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정체성’은 새로운 길을 시작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1907년은 우리 조국에게 있어 매우 수치스러운 해입니다. 사실상 우리 조국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해 7월 24일, 헤이그 특사 사건을 계기로 고종이 강제 퇴임 당했고, 대한제국을 일본에 강제 합병하기 위한 마지막 조치로 ‘정미7조약(한일신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조국은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군대마저 해산당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1907년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극한의 절망과 패배의 자리인 조국 평양 땅에 ‘대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민족은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눈에 보이는 땅을 다 잃어버리는 절망을 경험했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늘의 것을 얻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전히 그 다음 이야기를 써 가시는 이 세계의 최고경영자 하나님의 시간은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나눔

1. 말씀을 통해 기도합니다.

1)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행13:47)

예)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기의 순간, 눈앞에 보이는 현상보다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2)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렸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생각지도 못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더 바르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2.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3.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8과
강함은
관계에서 나온다



사도행전 14장 1-7절

1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2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3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4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5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6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데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7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말씀나눔

일본 만화계의 거장 우라사와 나오키의 작품 <20세기 소년>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습니까?”

“강해진다? ‘강하다’는 것은 ‘약함’을 아는 것. ‘약하다’는 것은 ‘겁을 내는 것’. ‘겁을 내는’ 것은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강하다’는 것이지.”

우리는 흔히 어떤 인연에도 매이지 않고 소중한 것마저 과감히 내칠 수 있는 사람을 ‘독종’이라 부르며 강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것은 강한 것이 아니라 매정한 것일 뿐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오히려 ‘소중한 관계’에서 나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사람, 지켜내고 싶은 추억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현실을 돌파할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공과에서 우리는 바로 이 ‘관계의 힘’을 배웁니다. 흔히 바울을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철저한 ‘나 혼자 사역자’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도 결코 놓칠 수 없는 소중한 관계들이 있었고, 그 관계의 힘으로 험난한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관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중한 관계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기억하세요. 강함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들어가면서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관계가 있습니까? 그 존재가 내 삶에 어떤 힘이 되는지 순원들과 나누어 봅시다.

관찰 및 생각하기

1. 이고니온에서 사역할 때 바울과 바나바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행14:1-2)
2. 새롭게 찾아온 시련 앞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보이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행14:3)
3. 바울이 고통스러운 환경보다 복음 전파에 더 집중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고. 행14:43; 딤후전1:12-13)
4.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신들을 신(神)으로 숭배하며 제사하려 할 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대처합니까?(행14:11-15)
5.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를 겪고도 다시 그 위험한 성들로 돌아갑니다. 핍박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14:22-23; 14:28)

목상과 적용

1. 고통과 시련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떠올려야 할 은혜는 무엇인지, 여러분이 머물러야 할 아픔의 자리는 어디인지 생각해 봅시다.

2. 여러분에게는 믿음과 소망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소중한 관계가 있습니까? 그 관계로 인해 어떤 영적인 유익을 경험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다락방)가 더 건강한 영적 공동체가 되기 위한 우리의 다짐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기도나눔

1. 말씀을 통해 기도합니다.

1)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리라”(행14:28)

예) 고난 중에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게 하옵소서. 주님이 맺어주신 소중한 지체들과 함께 기도의 손을 잡고 이 길을 걸길 원합니다. 관계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2)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 힘든 순간, 눈앞의 것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의 동역자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중한 관계를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시고, 매 순간 온전히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2.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3.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9과

예루살렘 회의에 가면



📖 사도행전 15장 12-21절

- 12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 13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 14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 15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 16 이 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 17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
- 18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 19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 20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 21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말씀나눔

교회 내의 회의(Meeting)에 대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회의가 너무 많으면 회의(懷疑)에 빠진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종종 마주하는 안타까운 모습 중 하나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강경한 태도입니다. 아마도 내 주장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확신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법정의 판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재판이 ‘교회 재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일부 교인들이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배하며 싸우고, 기도하며 싸우고, 심지어 상대방을 마귀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타협점은 사라지고 상처만 남게 됩니다.

교회의 이런 어두운 면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분이라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회의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의 ‘트라우마’를 씻어줄 만큼 멋지고 아름다운 회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회의는 과연 무엇이 달랐을까요? 이 시간을 통해 사권의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크고 작은 모임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아름다운 소통의 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어가면서

교회 사역이나 공동체 안에서 ‘회의’에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경험했던 최고의 회의 혹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최악의 회의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자유롭게 나누어 봅시다.

관찰 및 생각하기

1. 예루살렘 회의는 자칫 교회가 분열될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열렸습니다. 갈등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습니까? (행15:1-2,5)
2. 이 어려운 난제를 풀기 위한 ‘회의 구성원’은 누구이며, 진행 과정은 어떠했습니까? (행15:6-11, 16-18, 28)
3. 회의 전(15:2)과 후(15:25-26)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회의를 통해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추측해 봅시다.
4. 예루살렘 회의의 최종 결론은 무엇입니까?(행15:19-20) 이 결론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목상과 적용

1. 예루살렘 회의가 아름다운 결론을 도출했던 이유는 그들이 모든 안건과 관계 속에 하나님을 개입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대화나 토론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다락방)는 매사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공동체인지 돌아봅시다.
2. 예루살렘 회의의 참석자들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대화가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대화를 선택했습니다. 나는 평소 지체들과 대화할 때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 합니까, 아니면 상대의 ‘영혼’을 살리려 합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기 위해 오늘 내가 결단해야 할 한 문장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회의는 우리 모두가 가보고 싶은 회의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람 야고보도 있고, 사람 살리는 베드로도 있고, 믿음으로 충만한 바울, 사랑으로 충만한 바나바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권의교회도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권의교회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배려도 있고 사랑도 있다고 당당히 외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권의교회에는 말씀의 사역자들도 있고, 사랑의 순장님들도 있고, 따뜻한 순원들도 있습니다.

기도나눔

1. 말씀을 통해 기도합니다.

1)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행15:25-26)

예) ‘다툼과 변론’(15:2)의 당사자도 ‘사랑하는 형제’로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복임을 인정하고, 옆에 있는 지체를 내 몸의 일부로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2)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 살리는 대화보다 이기는 대화에 더 익숙했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대화법을 버리고, 주님의 대화법, 사도들의 대화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2.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3.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10과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1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2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 받는 자니

3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아서라

4 여러 성으로 다녀 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성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5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말씀나눔

‘감사노트’를 써보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의 제목 대부분이 아주 일상적인 것들이라는 점이고, 또 하나는 진짜 큰 감사의 일들은 내가 구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 감사를 깊이 묵상할 때마다 이 진리를 발견하곤 합니다.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역 속에 파묻혀 누구보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바울, 동역자 마가의 이탈과 바나바와의 뼈아픈 갈등 등, 예상치 못한 사건들로 마음에 상처를 입은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감사를 되새길 여유가 있었을까요?

오늘 공과는 바울의 삶에 숨겨진 감사를 찾아보려 합니다. 비록 본문에 바울의 직접적인 감사 고백이 적혀 있지는 않지만, ‘범사에 감사하라’고 외쳤던 그였기에 그 힘겨운 순간에도 감사의 제목을 발견해 내지 않았을까요? 이 즐거운 상상을 시작으로 우리 역시 잊고 지냈던 숨겨진 감사를 되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중 감사를 놓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감사를 회복합시다.

들어가면서

이번 학기(혹은 최근의 삶)를 돌아보며 발견한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어 봅시다.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 중 새롭게 깨달은 감사가 있습니까?

관찰 및 생각하기

1. 예루살렘 회의의 주역이었던 ‘야고보’는 본래 예수님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였던 사람입니까? (마13:55; 막3:20-21)
2. 불신과 조롱을 보냈던 야고보가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어떤 인물로 변해 있습니까? (행15:13, 참조. 고전15:7; 약1:1)
3. 예루살렘 회의의 큰 은혜가 채 가시기 전, 바울이 마주한 뼈아픈 ‘내부적 갈등’은 무엇이었습니까? (행15:39-41, 참조. 행13:13)
4. 갈등을 뒤로하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난 바울. 그의 계획은 하나님에 의해 어떻게 가로막힙니까? (행16:6-7)
5. 계획이 무산되는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에게 새로운 ‘만남의 축복’을 열어주십니다. 그 주인공들은 누구입니까? (행16:1-2; 16:10; 16:14-15)

목상과 적용

1. 예수님의 친형제임에도 믿지 못했던 야고보가 ‘주의 종’으로 변화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삶에서 일어난 가장 놀라운 변화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난 후 내 삶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나누어 봅시다.

2. 바울에게는 계획이 틀어지고 동역자와 헤어지는 ‘뜻밖의 일’들이 계속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연약함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이번 학기,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까? 함께 나누어 봅시다.

3. 바울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만남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디모데, 누가, 루디아는 누구입니까? 눈을 들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 봅시다.

기도나눔

1. 말씀을 통해 기도합니다.

- 1)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 받는 자니”(행 16:2)
예) 우리에게 믿음의 형제 디모데와 누가, 진리의 자매 루디아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단한 인생길이지만, 이들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 2)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 여전히 변화되기 전 야고보로 머물러 있는 우리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방해만 하는 우리의 무지함을 회개합니다.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반드시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2.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3.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11과 자기 수익의 소망



📖 사도행전 16장 16-23절

- 16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 17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 18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 19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 갔다가
- 20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 21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 22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 23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말씀나눔

오늘과 다음 주 공과는 하나의 이야기로 길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네 명의 인물을 두 번에 나누어 깊이 살펴볼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네 사람은 언뜻 보기에 전혀 다른 삶의 궤적을 그리며 살아가지만, 묘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저마다의 인생에서 깊은 '절망'을 통과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본문은 이 네 사람의 이야기가 마치 한 편의 옴니버스 영화처럼 유기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다른 이에게 영향을 주고, 그 영향력이 또다시 다음 사람에게로 흐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인물에 이르러,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드러납니다.

도대체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2주간 이어지는 탐구를 통해 이들의 삶을 자세히 파헤쳐 보려 합니다. 그 여정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들어가면서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인생의 방향을 바꿀 만큼 누군가에게 받은 선한 영향력이 있습니까? 반대로 나의 말이나 행동이 누군가에게 뜻밖의 영향력을 전해주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관찰 및 생각하기

1. 빌립보에서 바울 일행이 가장 먼저 마주친 고통받는 여인은 누구입니까? (행16:16)
2. 이 여인이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며 외친 말은 무엇입니까? (행16:17) 그녀의 고백은 '정답'이었지만, 왜 흥미롭고도 위험한 상태였을까요? (참조. 약2:19)
3. 귀신에게 매여 살던 여인에게 찾아온 진정한 해방과 축복은 무엇입니까? (행16:18)
4. 여인의 주변부 인물들은 그녀에게 찾아온 기적과 회복을 왜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눈을 가렸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16:19, 참조, 눅16:13-14)

묵상과 적용

1. 이 여인에게 나타난 오류가 우리의 문제는 아닐까요? 혹시 우리도 입술의 고백은 화려하지만, 마음과 삶의 방향은 여전히 믿음 없는 길을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고백과 삶이 일치하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참조. 요2:9)
2. 여종의 주인들은 '돈'에 눈이 멀어 눈앞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소중한 영혼의 회복보다 자신의 이익이 사라진 것에 분노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헛된 가치(돈, 성공, 체면 등)를 붙잡느라 놓치고 있는 '진짜 소중한 은혜'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나누어 봅시다.

기도나눔

1. 말씀을 통해 기도합니다.

1)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행16:18)

예) 우리를 어둠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머리로만 알고 이해하는 신앙이 아니라, 마음과 삶으로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2)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 세상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옵소서.

2.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3.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19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 갔다가

20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21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22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때로 치라 하여

23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24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꼬에 든든히 채웠더니

25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26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27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28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29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30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31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32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33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찢어 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34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 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말씀나눔

오늘은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하는 또 다른 두 사람에게 주목해 보려 합니다.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바울', 그리고 그 감옥에서 바울을 지키던 '간수(교도관)'입니다. 이 두 사람을 만나고 나면, 지난주에 보았던 사건들은 일종의 전초전에 불과했음을 알게 됩니다. 훨씬 더 처절하고 절박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때때로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길 없는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절망의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이번 학기 마지막 공과를 통해 그 해답을 확인해 보려 합니다.

이번 학기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과 그 위대한 사랑이 사권의교회 모든 다락방과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들어가면서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절망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그런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지체를 만난다면, 여러분은 어떤 위로와 소망의 말을 건네시겠습니까?

관찰 및 생각하기

1. 바울은 지금 어떤 처참한 형편에 놓여 있습니까? (행16:19-24) 만약 여러분이 바울이었다면 그 밤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2. 최악의 상황 속에서 바울이 보인 놀라운 반응은 무엇이며, 그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행16:25-26)
3. 옥문이 열리자 바울보다 더 깊은 절망(죽음의 공포)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이며, 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까? (행16:27)
4. 죽음 직전의 간수가 바울의 발 앞에 엎드려 던진 인생의 마지막 질문은 무엇입니까? (행16:30)
5.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명쾌한 해답과 그 결과 맺어진 구원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행16:31-34)

목상과 적용

1. 깊은 감옥 안에서 바울이 선택한 ‘기도’와 ‘찬송’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거룩한 무기였습니다. 나를 가두고 있는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내가 회복해야 할 찬송과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2.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는 간수의 정직한 질문에 하나님은 가장 확실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께 나의 나아갈 길을 묻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씨름하고 있는 나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3.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행16:31) 이 약속은 오늘 우리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너’ 대신 옆에 있는 지체의 이름을 넣어 이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주며 서로를 축복해 봅시다.

기도나눔

1. 말씀을 통해 기도합니다.

- 1)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행16:25)
예) ‘기도’와 ‘찬송’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토록 기도를 멈추지 않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 2)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 예기치 못한 현실 앞에 절망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 ‘자결’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2.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3.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과 사귀는

사^귀김의
교회